

# 재건축 조합원 사전 안전망 구축

### 전주시, 도시계획 심의 거쳐 건축계획 결정 후 모집하는 것으로 지역주택조합 행정절차 제도개선

전주시는 지역주택조합이 임의로 정한 건축계획으로 발생하는 재건축 조합원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사전 안전망을 구축하기로 했다.

전주시는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는 조합원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도시계획 심의를 거쳐 건축계획이 확정되기 전 조합원을 모집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지역주택조합사업의 경우 토지 확보, 건축규모 등이 최종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업무 대행사가 정확한

정보 제공없이 조합원을 모집하면서 사업 추진시 발생했던 부담을 조합원이 고스란히 떠안아야 했다.

이에 대해 시는 수요자들이 필요한 내용들을 챙겨 활용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 심의 절차를 통해 건축계획을 결정 한 후 조합원을 모집하도록 제도개선을 내놓았다.

제도가 개선되면 지역주택조합 주택을 건설할 때 임의적 건축계획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결정과 도시계획 심의 등 행정절차상의 진행에 따라 세대수 및 규모 축소 등 건축계획 변경

소지를 없애고 토지확보로 사업진행이 무산되는 등 사업계획의 불확실성과 낮은 실현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조합원의 피해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전주시 생태도시국 관계자는 "일반 공동주택 분양의 경우 사업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책임을 시행사나 시공사가 부담하지만 지역주택조합은 주민이 조합을 구성하고 사업부지를 매입해 아파트를 건립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모든 책임이 조합원에게 돌아간다"며 "제도개선을 통해 지역주택조

합사업의 불확실성에 따른 위험성으로부터 조합원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역주택조합은 본인의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 조합을 결성하고 조합이 사업주체가 돼 주택을 건설하는 방식으로 해당지역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세대주로 무주택자이거나 전용면적 85㎡이하 1주택 소유자인 세대주가 청약통장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를 의미한다.

/채규남 기자

## 전주시정 주요 업무 발표

전주시는 15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시청 주요 업무를 발표했다.

민선5기 기획조정국장은 지난 9일 전주시장 신년 기자회견에서 언급한 시청 주요 업무에 대해서 구체적인 현안 업무를 설명했다.

구체적 주요 현안 업무는 국가예산 신규사업 발굴, 전주형 창의학교, 야호학교 활성화, 밥 굶는 아이 없는 엄마의 밤상, 전주 첫 마중길 '빛의 거리' 운영, 설 명절 대비 한옥마을 내 식품위생업소 지도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채규남 기자

## 송천동 게이트볼 전용구장, 개·보수

지은 지 17년이 경과하면서 시설이 낡고 이용하기 불편했던 전주시 송천동 게이트볼 전용구장이 쾌적하고 안전한 체육시설로 탈바꿈된다.

전주시는 오는 7월까지 국비 10억원, 시비 10억원 총 20억원을 투입해 송천동 게이트볼 전용구장 증축 및 개보수공사를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우선 시는 게이트볼장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기둥을 증설하고 노후화된 외벽 판넬과 내·외부 마감재, 인조잔디를 교체하기로 했다.

또한 화재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는 등 이번 개·보수 공사를 통해 시설을 안전하게 바꿀 예정이다.

송천동 게이트볼장 보수가 완료되면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이용 만족도가 향상되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체육활동을 수행하게 돼 건강 한 여가생활을 위한 생활체육도 활성화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앞서 시는 송천동 게이트볼장이 지난 2001년 3월 준공된 후 17년이 지나 시설 노후화로 인한 누수·결로 등이 발생하자 체육시설을 안전하게 바꾸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의 공공체육 시설 개·보수 사업을 신청, 총 10억원의 체육기금을 확보했다.

이후 시는 지난해 6월 해당 체육시설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실시 후 설 계유형 및 행정절차를 진행했다.

전주시 문화관광체육국 관계자는 "다수의 시민들이 이용하는 체육시설 인 만큼 신속·정확하게 공사를 진행해 시설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할 것"이라며 "무엇보다 향후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채규남 기자

## 전주시, 청년진로코칭 프로그램 '글로벌 진로 두드림' 운영

전주시는 해외취업과 국제활동에 관심이 많은 지역청년들을 돕기로 했다.

시는 오는 2월부터 6월까지 5개월 동안 전주청년소통공간 '비빌'에서 지역 청년들의 진로영역을 세계로 확장하기 위해 국제 활동 전문가와 상담할 수 있는 진로코칭 프로그램인 '글로벌 진로 두드림'을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지역 청년들이 국제 활동 전문가와 지식·경험을 공유할 수 있고 전문가와 유사한 관심사를 가진 청년간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어 청년들의 진로고민을 해결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전망했다.

이번 진로코칭 프로그램에는 국제 활동 분야에서 전문적 식견을 지닌 하재용 지구마을청년협동조합 이사장 겸연재 HRD 컨설턴트, 임동구 체질 라이프스타일 연구소장 등 진로전문가 9명이 참여해 청년들에게 실질적이고 생생한 국제경험과 국제기관들에 대한 정보를 들려줄 계획이다.

먼저 오는 27일에는 사전 특강 형식으로 지역청년들에게 국제진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강의를 진행한다.

이후 신청자를 대상으로 오는 2월 10일부터 5월 26일까지 8회에 걸쳐 본격적인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일정 별 프로그램 주제는 △글로벌 취업(2월 10일, 24일) △국제기구와 외교부(3월 10일, 24일) △국제제약산업(4월 14일, 28일) △국제창업과 사회적기업(5월 12일, 26일)로 청년들과 전문가 간 집중 멘토링이 진행된다. 또 6월 초에는 국제활동 단체들을 직접 방문해 현장중심의 학습도 진행될 예정이다.

/채규남 기자



대통령직속 지방위 특별위원회 위촉 김승수 전주시장(오른쪽)이 15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대통령직속 지역발전 위원회에서 국민소통 및 지역협력 호남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됐다. 이날 오전 김 시장이 위촉장을 받고 있다. (사진=전주시청 제공)

##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전주, 15일 ~ 3월30까지

전주시는 시민들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같은지 조사하기로 했다.

시는 15일부터 3월 30일까지 75일 동안 2018년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일치시켜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것으로 중점대상자는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부실신고자 △시방 의심자

△입국 기록이 없는 재외국민 주민등록자 등이다.

이를 위해 시는 통장 및 담당 공무원으로 합동조사반을 편성해 전 가구 방문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조사 결과 허위 전입이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에는 최고·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직권으로 거주불명등록 및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는 이번 일제정리기간 동안

안 패대로 부과대상자가 자진 신고할 경우 경제적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과태료의 최대 4분의 3까지 경감 혜택을 받을 수 있음을 통보하고 재등록을 유도한 방침이다.

양영숙 전주시 자치행정과장은 "이번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시민 여러분의 양해와 협조를 바란다"며 "정확한 사실조사로 시민편의 제공 및 효율적인 행정업무를 도모 하겠다"고 말했다.

/채규남 기자

## 병원 앞 1인 시위 아버지에 '명예훼손' 벌금형

아이가 태어난 지 열흘 만에 숨지자 출산 전 진료를 받았던 병원 앞에서 1인 시위를 한 아버지에 벌금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형사1부 노종찬 부장판사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43)씨와 A씨의 형(48)에게 각각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016년 6월 23일 전주시의 한 산부인과 병원 인근에서 '산모가 임원 도중에 출혈과 배 통증 등을 계속 호소했지만, 병원에서는 치료한 게 없다. 병원장은 악마였다'란 내용의 호소문을 걸고 1인 시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병원 측은 산모에게 자궁수축 억제제와 항생제를 투여하고 초음파 검사 등을 하는 등 조산방지 치료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아내가 다른 병원으로 옮겨 출산한 아이가 태어난 지 열흘 만에 숨지자 1인 시위에 나선 것으로 드러났다. A씨의 아내는 해당 병원에서 5개월가량 산전진료를 받았었다.

노 판사는 "진료기록 등 증거들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들이 적시한 사실은 객관적 사실과 합치 않은 허위 사실이라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병원 측이 대화조차 거부하는 무책임한 태도를 보여 책임 있는 답변을 듣기 위해 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다만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었다고 보이지 않아 피고인들의 행위가 사회 통념상 허용될만한 정당 행위라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상민 기자

## 우리동네 무인주차장 어디에 있을까?

주차하고 구경하고 무인주차장에 주차하면 시간도 절약되고 편리합니다.

### [전주시 무인주차장 안내]

- 서부신시가지 도청영**  
전주시 완산구 흥산북로 75 (239-2767~69)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 서부신시가지 농협중앙회 부근**  
전주시 완산구 흥산북로 53 (239-2767~69)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 서부신시가지 다은병원 부근**  
전주시 완산구 흥산2길 5-12 (239-2767~69)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 서부신시가지 KB은행 부근**  
전주시 완산구 흥산1길 4-13 (239-2767~69)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 노송천 주차장**  
전주시 노송여울2길 108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 덕진광장 주차장**  
전주시 덕진구 덕진광장로 3 (239-2562)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 실내체육관 주차장**  
전주시 덕진구 권삼덕로 308 (251-1264) (연중무휴) 4,000원 기본(30분):500원, 추가(15분):250원